흡연 세뇌와 관련된 질문들

1. 이 이야기를 창작하게 된 영감은 무엇인가요?

‘레몬빛돌고래’님에 쓰신 ‘인간 수정 에디터’라는 소설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엔 담배를 싫어하는 ‘선아’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주인공이 현실 조작 어플을 이용해 그녀의 기호를 완전히 뒤틀어 버립니다. 고결한 인물이었던 선아는 술, 담배에 찌든 바람기 왕성한 음란녀로 전락합니다.

너무나 잘 쓰인 작품이라 외국 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유료 소설 사이트에 연재된 작품이라 직접 소개드릴 수 없어 아쉽습니다. 어쨌든 고결한 여성이 타락하는 장면에서 굉장한 배덕감을 느꼈고, 이런 소재를 변주해서 만화로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몬빛돌고래 – 인간 수정 에디터 (JOARA)

2. 왜 타락에 관한 이야기를 골랐나요?

어릴 적부터 제가 좋아했던 장르기 때문입니다. 최면 장르의 매력은 한 인간의 가치관이나 기호가 반전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성노예로 전락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인간으로 거듭나는 게 이 장르의 백미라고 봅니다. 제가 가장 잘 알고, 많이 접한 장르라 선택했습니다.

3. 김용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자연재해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부러 김용에게 특별한 서사를 부여하지 않았고, 그의 욕망도 자세히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건 대부분 여성 캐릭터들이죠. 시나리오 구조상 김용은 주체적 캐릭터로서 작동하기보단 주인공들에게 닥친 자연재해로서 기능하는 면이 더 큽니다.

4. 김용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작중에 자세히 묘사되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치밀한 인물입니다. 오랫동안 마약 카르텔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도 수사기관의 감시망을 완벽히 피해갔고, 경찰들이 카르텔을 급습했을 때도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신우에게 늘 얻어터지는 장면만 나와서 그렇지, 싸움 실력도 상당한 편입니다.

약점은 ‘비열함’입니다. 클럽에서 수세에 몰리자 부하들을 버리고 혼자 도망치는 장면만 봐도 알 수 있죠.

5. 타락한 서연과 김용 중 누가 더 악랄하다고 생각하나요?

당연히 김용이 훨씬 악랄합니다. 서연은 타의로 인해 인격을 빼앗겨버린 캐릭터니까요.

6. 원래는 있었지만 추후 변경된 캐릭터나 플롯이 있습니까?

네. 원래는 시즌2의 주인공은 서연의 여동생 '서하'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언니의 변화를 감지하고 신우와 함께 언니를 구하려고 노력하지만, 끝내 타락하게 되는 캐릭터였죠. 하지만 서연에 비해 그닥 매력이 없고, 김용에게 큰 위협을 줄 수 없는 존재라 폐기했습니다. 향후 서연 엄마의 이야기를 다룬다면, 서브 캐릭터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시즌2 메인 히로인이었던 진서하

7. 이 이야기는 원래 비극적인 이야기로 구상되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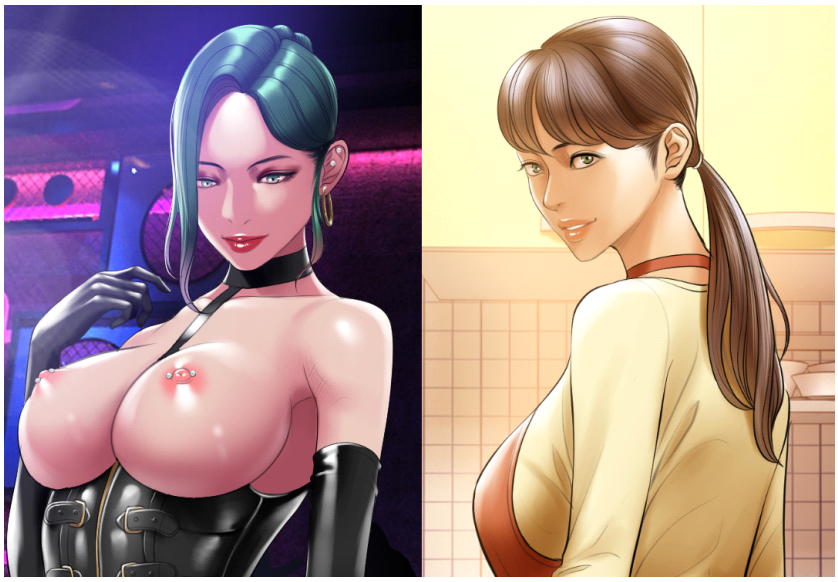
네. 해피 엔딩은 아예 생각도 안했는데, 많은 분들이 해피 엔딩을 원하셔서 처음엔 상당히 놀랐습니다. 저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선호하지만, 지금은 해피 엔딩을 원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요.

8. 이 이야기에는 하나의 결말만 존재하나요?

몇 번 댓글로 설명한 바 있지만, 저의 체력이 허락한다면 짧은 해피엔딩 버전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만화 형식은 아니고 소설로요.

9. 시즌 3이 있을 예정인가요?

아직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카르텔 수뇌부와 김용 카르텔의 항쟁이 될 수도 있고, 경찰보다 강력한 국가 기관과의 싸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아예 시즌3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좋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거든요.
그보다는 최혜진 변호사나 서연의 엄마 같은 스핀 오프 캐릭터의 이야기를 이어가볼까 합니다. 시즌2가 끝날 때 즈음, 어떤 캐릭터가 적합할지 투표를 붙여볼 생각입니다.



최혜진 변호사, 서연 엄마

10.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누구인가요?

지민과 신우를 가장 좋아합니다. 두 사람 다 불의를 참지 않는 강인한 인물들이니까요.

개인적인 질문들

1. 얼마나 오랫동안 그림을 그려왔나요? 그리고 왜 만화 그리기로 결심했나요?

일곱 살 때 슬램덩크를 접한 뒤부터 줄곧 만화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한 번도 꿈이 바뀐 적은 없었고, 학창시절부터 다소 조악하지만 수많은 습작을 그렸습니다.

2.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생략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제 그림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데포르메도 크게 없고, 웬만하면 모든 걸 우직하게 묘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작업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됩니다. 적절하게 생략하고, 간단하게 사물을 묘사하면서도 맛깔나게 느낌을 살리는 작가들을 보면 매우 부럽습니다.

3. 만화를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나요?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강박에 빠져서 몇 년을

허송세월했거든요. 고민만 하고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졸작이더라도 여러 작품을 그리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4. 그림 그리는 것이 주업인가요?

네.

5. 플롯은 어떻게 생각해내나요?

어느 날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주위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실마리를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6. 현재 다른 플롯을 가진 만화를 그릴 계획이 있나요?

네. 일반적인 로맨스를 다룬 만화도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무거운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만화도 그리고 싶고요. 에로틱 만화 쪽으로도 여러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Mizuryu kei land'처럼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 뒤집혀서 모두가 음란해진 세계관도 다뤄보고 싶습니다.

7. 여가 시간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원래는 게임과 넷플릭스를 즐겼는데, 요즘은 거의 못하고 있어요. 게임은 요즘 게임보다는 고전 게임을 주로 즐기는 편입니다. 킹오브 파이터, 코에이 삼국지 6, FIFA 시리즈를 주로 플레이하는데, 대부분 제가 어릴 적에 했던 게임들이에요.
그리고 최면이나 NTR을 다룬 웹소설도 즐겨 읽습니다.

8. 만화 작업은 혼자 하는 편인가요?

네. 대부분 제가 혼자 합니다. 밑색 작업을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 번역을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100% 제가 혼자 한다고 말씀드릴 순 없네요.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9. 언젠가 출판할 계획이 있나요?

제 모국에서는 이런 작품을 출판한다는 걸 상상하기 어렵지만, 만약 출판사에서 제안이 들어온다면 매우 기쁠 거 같네요!

10. 가고 싶은 곳이 있나요?

너무 많습니다! 저는 축구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월드컵이 개최되는 도시나 유럽을 가보고 싶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월드컵 결승전을 직관하는 게 저의 평생의 소원입니다ㅎㅎ